

[바 둑]

국무총리배 세계 아마추어 바둑선수권대회와 이창호배 바둑대회, 대한바둑협회 회장배 대회 등 굵직한 바둑 대회가 전주에서 일제히 막을 올린다.

세계아마바둑대회·이창호배·바둑협회장배...

올 가을 전주는 '바둑 즐잔치'

가장 눈길을 끄는 대회는 제1회 국무총리배 세계아마추어바둑 선수권대회(21일~27일).

스포츠바둑 홍보를 위해 창설된 이번 대회는 지난해 국내 아마추어대회로 첫 선을 보인 뒤 올해 세계대회로 격상됐다.

LG배와 삼성화재배, 농심신라면배와 여자대회인 정관장배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대의 국제프로기전 개최국인 한국이지만 그동안 아마대회에서는 미진한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

71개국 아마 최고수, 11년 패전 농교 각축

매년 세계아마대회를 개최해 올해 27회를 맞이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지난 2003년 인천세계아마대회를 한 차례 연 것이 전부.

그런 점에서 국무총리배는 단발성에 그친 인천대회와 달리 매년 개최될 예정인데다 국내 바둑계로서는 처음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세계대회가 준비됐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를 지닌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16개국, 유럽 35개국, 미주 15개국, 오세

아니아 2개국, 아프리카 3개국 등 71개국에서 참가하며, 22일부터 25일까지 전주교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총 8회전으로 대회를 치르게 된다. 우승자에게는 바둑 연구비 300만원이 주어진다.

전주시는 국무총리배 대회 기간 동안 다양한 대회와 부대행사를 곁들여 세계 최대의 바둑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대회로는 이창호배 아마바둑선수권대회와 바둑협회장배, 그 밖에 이벤트 성격인 초속기전과 페어대회, 순장바둑대회가 열린다.

올해로 8회를 맞은 이창호배는 전주 이창호사랑회가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아마추어 바둑대회. 21일과 22일 이틀간 전주교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다. 일반부와 여성부, 청소년부, 어린이 유단자부로 나뉘어 치러지며 일반부의 경우 자예에 제한은 없으나 다른 부문과 달리 2만원의 참가비가 있다. 참가접수는 이창호사랑회(문의 063-284-3304).

또 국무총리배의 주관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바둑협회 회장배가 23일과 24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빠른 손'을 뽑는 속기대결인 초속기전은 오는 24일 저녁 7시부터 전주 삼성생명연수원

21~27일까지 초속기전 등 부대행사도 볼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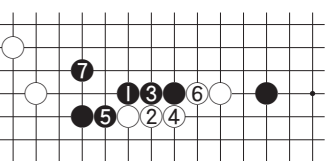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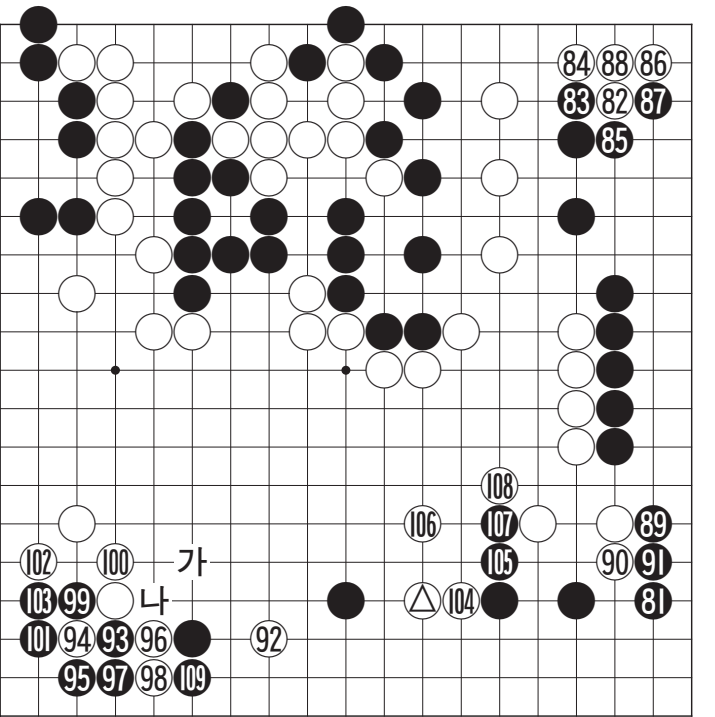
에서 벌어질 예정. 외국인만 참가할 수 있다.

페어바둑대회는 25일 전주교대 체육관에서 열리며 2명이 1조를 이뤄 참가할 수 있다. 치수교대 대국이 진행되는 만큼 기력이 약한 사람들도 출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 개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팀원 간의 호흡이 더 중요하다.

또한 미리 치석을 놓고 대국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순장바둑대회도 첫 선을 보인다. 문의는 대한바둑협회(문의 02-3407-3880)로 하면 된다.

제15회 光日盃 모처럼의 실수

白 정장호 5단 <포스쿠> 黑 박명수 5단 <농협>



<참고도>

중앙에는 '백설'이 수북이 내리고 있는데다가 백 ㉞로 선착 당해 박명수 5단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흑 81은 세블리를 의식한 실리 챙기다. 흑은 '가'의 대세점을 외면하고 승부로 나가고 있다.

이제는 당연히 백이 그곳을 차지할 찬스. 그러나 정장호 5단은 박 5단의 실리작전에 말려들었는지 갑자기 백 82로 우상귀를 도려내고 있다. 사소한 실리다름에서도 손해 볼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흑 89도 작은 곳. 지금이라도 '가'로 뛰어야 했다. 박 5단은 실리에 집착한 나머지 가끔씩 찾아오는 절호의 찬스를 무심코 흘려 보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관전자는 재미가 없어진다. 바둑이건 일상이건 가끔은 멀리 떨어져 전체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백은 드디어 속제로 남아 있던 92로 쳐들어 왔다. 흑 93은 이럴 때의 상용수법이지만 지금은 중앙의 백 세력을 의식해 '참고도'의 흑 1로 막아 7까지 두렵게 두고 싶다.

정 5단에게서도 모처럼 실수가 튀어 나왔다. 백 100이 그것으로, 이 수로는 '나'에 이어야 두렵다. 이 수로 인해 흑 109로 막아 과반이 인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국수전 도전권 넘보지 마!

박영훈·윤준상, 각각 원성진·이희성 꺾고 결승 격돌

대회 창설 50년을 맞은 국수전 도전권이 박영훈과 윤준상으로 압축됐다.

박영훈 9단과 윤준상 4단이 최근 한국기원 본선 대국실에서 열린 제50기 국수전 준결승에서 각각 원성진 7단과 이희성 7단을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두 기사간 대국 승자는 이창호 9단과 도전 5번기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른다. 도전자 결정전 3번기는 오는 12월 열린다.

이날 패한 원성진 7단과 이희성 7단은 차기 대회 본선에서 시드를 받게 됐다. 국수전 본선 무대를 처음 밟은 박영훈 9단은 윤준상 4단과 상대전에서 3승1패로 앞서 있다. 바둑계에서는 객관적인 성적면에서도 박영훈 9단의 우세를 짐작하고 있다.

기전 총상금 규모는 2억3천만원이며, 우승상금은 4천만원(준우승 1천 500만원)이다. 제한시간은 각각 3시간 초읽기 60초 5회가 주어진다. /염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영훈 9단>

<윤준상 4단>

'무한질주' 이세돌, 다관왕 사냥 나섰다

물기정보·맥심배 우승 이어 박카스배에서도 정상 도전

'세돌' 이세돌 9단이 다관왕을 노린다.

이세돌 9단이 지난 18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11기 박카스배 천원전 준결승전에서 진동규 3단에 150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세돌 9단은 오는 11월 7일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조한승 9단과 천원 타이틀 결승 5번기를 갖는다.

KBS바둑왕전에 이어 박카스배 천원전까지 결승무대에 올라서게 된 이세돌 9단은 다관왕 획득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

이세돌 9단은 올해 제2기 한국물고기정보배와 제7기 맥심커피배 입선회 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세돌 9단은 최근 성적에서도 상



이세돌 9단(오른쪽)이 지난 18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11기 박카스배 천원전 준결승전에서 진동규 3단과 대국하고 있다. <한국일보 제공>

승세를 타고 있어 천원전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지난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22승 3패의 기록적인 성적이다.

천원전에서 조우하는 이세돌 9단과 조한승 9단은 입단동기로, 역대전적은 이세돌 9단이 8승 6패로 앞서고 있다. 올해 전적은 1승 1패로 호각세.

이세돌 9단은 지난 2000년도 대회 우승을 한 차례 차지한 바 있으며 조한승 9단은 이번이 처녀 결승 진출이다.

대회 제한시간은 각 3시간, 6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지며 우승 상금은 2천만원이다. 전기 대회에서 우승자는 고근대 5단이다.

Advertisement for '영화안네' (Movie Anne) featuring 'Happy Time' and '영화안네'.

Advertisement for '메가박스' (Megabox)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times.

Advertisement for '타짜' (Tazza) featuring the main cast and showtimes.

Advertisement for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times.

Advertisement for 'DOA' (Doa) featuring the main cast and showtimes.

Advertisement for '콜롬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times.

Advertisement for '내가 있어 참 좋다...' (I'm here, it's so good...)

Advertisement for '건물매도' (Building Sale)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Advertisement for '일가공인중개사' (Ilga Gongin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Advertisement for 'LC타워(주)' (LC Tower) listing various properties.

Advertisement for '21세기부동산건설(주)' (21st Century Real Estate Construction) listing various properties.

Advertisement for '현대공인중개사' (Hyundai Gongin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